

‘IT 기반’ 의료인프라 분야 진출 가장 많아

BT·HT분야에서 기술 융합 통한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인프라분야로 다양하게 진출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융합산업실 동향분석팀 김근령 · 윤성근 연구원

이 글은 국내 주요 5개 대기업의 BT와 HT분야에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진출 현황을 조사하여, 융합 신사업 진출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업들의 사업진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신사업 진출동향 및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함

분야별 신사업 진출현황

국내 주요 기업의 HT융합 신사업 진출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분석대상 및 방법론, HT융합분야의 신사업 구분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은 삼성, LG, SK텔레콤, KT, 포스코 등 국내 주요 5개 기업집단이며, 분석 방법은 대상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IR자료를 이용한 기초분석(1단계) → 유료 DB와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자료 및 뉴스분석(2단계) → 일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3단계)로 진행하였다.

〈표 1〉 HT융합 신사업 분야 구분

구분	내용
분야별	① 제약산업 (의약품제제, 의약품제조) ② 의료기기(의료용기기,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품관련제품) ③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질병서비스) ④ 의료인프라 (의료정보통신, R&BD(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진출형태별	① 직접사업진출 및 협력 ② 투자(인수, 지분취득, 합작사 설립 등)

융합 신사업 분야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HT융합신산업분류(2014년도)를 참고하여 신산업 진출분야를 제약산업(대분류)의 의약품제제/생산(바이오)분야, 의료서비스산업(대분류)의 건강증진 및 기타건강서비스분야, 보건의료인프라산업(대분류)의 의료정보및시스템분야, 제약인프라, 의료기기인프라로 분류하였다.

〈표 2〉에 따르면 2010~2014년간 국내 주요기업의 BT·HT분야 융합 신사업 진출은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약분야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로직스의 바이오제약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의료기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의료서비스의 경우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의 건강서비스분야의 직접 진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프라 분야의 경우 5개 기업 모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통신의 경우 LGU+, SK텔레콤, KT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CT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R&BD분야의 경우 삼성, LGU+, SK텔레콤, KT, 포스코 5개 기업 모두 병원 및 제약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직간접으로 사업에 진출해있고, SK텔레콤은 중국 심천에 메디컬센터를 건설하는 등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HT융복합 신산업의 산업분류 및 신사업 진출 현황(2010~2014)

구분	제약산업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인프라	
	의약품제제 (바이오)	의약품제조 (바이오)	의료용기기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품 관련 제품	건강서비스	질병서비스	의료정보통신	R&BD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진출기업명	(삼성바이오에피스) • 바이오젠아이텍과 유럽 마케팅 계약 체결 (2013.12) • MSD와 당뇨약 바이오시밀러 협력 계약(2014.2)	(삼성바이오로직스) • BMS와 항체약 생산계약(2013.7) • 로슈와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 (2013.10)	(삼성전자) • 의료기기사 써모 피셔사이언티픽 과 체외진단 분야 사업협력 체결 (2014.11)		(삼성전자) •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S 헬스 버디' 출시 (2013.8.20) • 헬스케어 '기어핏' 출시(2014.2) (SKT) • 헬스케어서비스 '헬스-온' 상용화 (2013.3) • '메디폰(외국인환자대상)원스톱로밍서비스'사업시작(2013.5)	(KT) • KT-연세의료원, 안질환 '트리코마' 환자관리앱개발 (2014.8)	(LGU+) • 명지병원과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공동 추진(2010.11) • 자생한방병원과 한방기반스마트 헬스케어사업 MOU(2013.3) (SKT) • 모바일 전자처방전 어플리케이션 출시(2012.2) • 효도림텔레케어 서비스 실시 (2012.7) • 조선대병원 국내 첫간호업무 모바일솔루션 공급(2012.12) • 한미, 세계최초 클라우드기반의 약물 유통관리서비스개시를 위한 협약(2014.2) •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 (2014.6) (KT) • 분당서울대병원과 스마트 u-헬스 추진(2010.12)	(삼성) • 의료기기 사업부 신설(2012.12~) (LGU+) • 보령제약과 융합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공동 추진 (2012.8) • 자생한방병원 과 한방기반스마트헬스케어사업 MOU(2013.3) (SKT) • 분당서울대병원, 맞춤형병원진료 안내서비스, 입원 환자안내서비스 공동개발(2013.3) • 중국 심천에 'SK 텔레콤 헬스케어 R&D센터'와 SK 심천메디컬센터' 개소(2014.7) (KT) • KT융합기술내 미래사업개발그룹 사업 중 헬스케어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포함 (포스코ICT) • 가톨릭의대-이미디어트랙과 u-헬스케어서비스 (2011.3)
직접사업진출 - 사업협력포함 -								
투자 - M & A, 지분인수, 합작설립 등 -		(삼성바이오로직스) • 바이오젠아이텍 (美바이오제약사) 와 3억불 바이오 시밀러합작사설립(2011.12)	(삼성전자) • 치과용엑스레이 장비업체 (쥬레이) 인수(2010.9) • 메디슨인수 (2010.12) • 넥서스(미국심장 질환관련검사술 루션개발) 인수 (2011.11) • 뉴로로지카(美컴퓨터단층촬영전문의료기기사) 인수(2013.1)	(SK텔레콤) • 나노엔텍 지분 인수(2011.2) • 티앤통사 지분 인수(2012.9) • 소마로직(美헬스케어사)와 공동 기술개발·협력 (2013.6)				(KT) •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의료-CT 합작사 '후헬스케어' 설립(2012.6) • 서울대와 바이오 인포매틱스 연구센터 설립(2014.7) (SKT) • 가천의대길병원과 스마트 호스피탈 사업 공동 추진 (2011.4) • 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합작사 '헬스카빅트(주)' 설립(2012.1)

주 : 각 사의 사업보고서(2014.4/4분기)와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함

기업별 신사업 진출현황

삼성은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어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양사를 중심으로 바이오분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인수(레이, 메디슨社, 넥서스, 뉴로로지카, 써도피쳐사이언티픽)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S헬스 버디’ 및 헬스케어 ‘기어핏’을 출시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 투자, 글로벌 제약사와의 위탁생산 계약 및 바이오의약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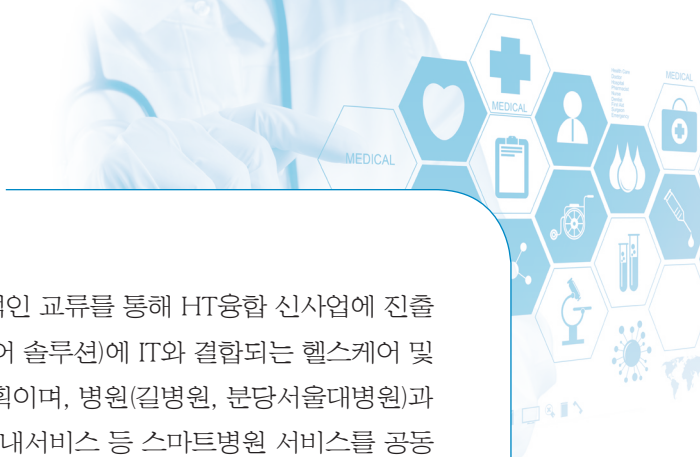
[그림 1] 삼성의 건강관리 어플 및 헬스케어 기어핏

출처: 삼성전자, 모모토

LG는 ICT를 기반으로 한 ‘IT+something’ 형태의 융합유형으로, 계열사인 LGU+를 중심으로 HT융합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LGU+는 탈(脫)통신 펀드조성, 스마트병원 구축,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헬스케어 사업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LGU+의 HT융합 신사업진출 현황

구분	조사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차원에서 HT융합사업 진출은 LGU+가 주력하고 있음 * 의약품 제조 계열사인 LG생명과학의 경우 신약개발, 신물질 개발에 주력함
사업영역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억 탈(脫)통신 펀드 조성(2010.5.19) * 교육, 헬스케어 등 이종산업 및 IT부문 투자, 기존 사업영역과 접목, 신기술 및 신사업 발굴 2020년 비전 및 전략(2010.7.7)에 u-헬스케어 포함
스마트 병원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지병원과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공동 추진(2010.11.22) 자생한방병원과 한방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MOU체결(2013.3.26)
헬스케어 사업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제약과 융합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공동 추진(2012.8.6)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의료정보시스템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2012.12.4) 연구개발사례: 헬스케어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선형 개발(2013)



SK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국내외 병원 및 제약기업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HT융합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헬스케어 분야(건강관리, 진단기기, 헬스케어 솔루션)에 IT와 결합되는 헬스케어 및 솔루션 등의 융합사업에 2015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병원(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스마트 호스피탈 사업 및 개인맞춤형 병원진료 안내·입원환자 안내서비스 등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주)’를 합작 설립하여 헬스케어서비스 ‘헬스온’을 상용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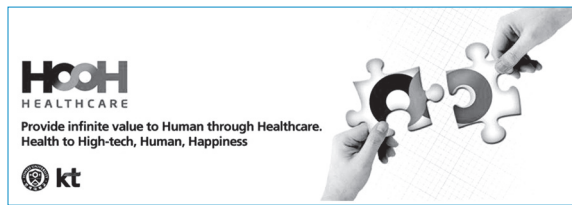
[그림 2] SK텔레콤의 헬스커넥트 및 헬스온 서비스

출처: 헬스커넥트

또한, 중국 의료기기업체(티엔룽社) 지분인수와 중국 심천에 SK텔레콤 헬스케어 R&D센터와 SK심천메디컬센터 개소 및 사우디 국가 방위부에 700억원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등 해외진출 및 제휴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역시, 타 통신사들과 유사하게,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사내 연구소인 KT융합연구소를 통하여 바이오인포메틱스 사업과, 병원 제휴 원격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사업영역 확장, 사내벤처기업 운영, 스마트 병원구축 및 헬스케어진출의 형태로 HT융합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으며, 연세의료원과 의료 ICT합작사인 ‘후헬스케어(HooH Heatcare)’를 설립하였다.

포스코는 포스코ICT의 한국의료정보원 컨소시엄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과 가톨릭의대와 협력하여 u-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건설사를 이용하여 송도국제도시에 u-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후헬스케어(HooH Healthcare) 설립

출처: HooH 헬스케어

시사점

국내 주요기업들은 IT기술을 기반으로 BT·HT분야에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인프라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프라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해외진출 및 관련 글로벌기업의 인수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